

# 제주호스피스

## 제주호스피스 창립 취지문

호스피스란 용어조차도 생소한 가운데 병원에서의 암환자 및 각종 말기환우들의 일상이 너무 험하고, 그 가족들의 어려움과 낙심하는 모습들이 안쓰러워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필요성을 동감하는 이들이 있고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이익에 우선하여 움직이는 이기주의적인 삶의 원리와 달리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여야 하는 일이겠기에 이 제주에서도 호스피스란 자원봉사단체를 창립하게 된 것이다.

## 연혁

- 1996. 10. 15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주노회에서 '병원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 '제주호스피스선교회 자원봉사자' 교육 준비 모임을 가짐.
- 1997. 4. 7 제 1회 자원봉사자 교육개강 ~ 6. 23 교육수료(230명)를 시작으로
- 2012. 9. 3 제 16회 자원봉사자 교육 개강 ~ 10. 15 교육수료(39명)함으로 총 16년 동안에 1,939명이 수료함.
- 2004. 1. 11 '제주호스피스선교회' 명칭을 '제주호스피스'로 변경함.

## 기관소개

### ○임원진 소개



1대 이사장  
김정서 목사



2대 이사장  
안찬수 목사



3대 이사장  
이승범 목사



전담사역자  
김명화 전도사



회 장  
전신권 장로



지 회 장  
조영매 권사



총 무  
오훈탁 집사

## 제주호스피스

- ① 대한예수교장로회 병원선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제주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제1회 교육 실시
- ② 체계 : 한라병원에서 산재형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S중앙병원(신설)과 활동 예정
- ③ 핵심가치 :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
- ④ 돌봄구조 : 봉사팀이 매일 오전·오후 하루 2차례 방문하여 환자상황 파악하고 전담 목사님께 알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상황에 따라 기도, 손·발마사지, 머리감기기, 미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
- ⑤ 자원봉사자 교육 : 2012년 16회 약 1,900명 정도 교육을 이수 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으로 봉사자 발굴에 힘쓰고 있으나 아직 봉사자는 소수이다.
- ⑥ 정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이사장목사님을 비롯하여 다섯분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는다.
- ⑦ 재정 기금 마련 : 영락교회 바자회 때 부스를 마련하여 고추장, 썩떡 등을 판매하였고 그 외 이사회 및 병원선교위원회와 환우보호자 감사헌금, 개인 CMS후원 등으로 재정 기금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⑧ 영적 돌봄 : 2012년도에는 세례자가 105명이었고 이들을 영접기도로 하나님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였으며 특별히 세례자에게는 성찬식 떡을 나누며 성경책과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여 축하시간을 갖고 있다. 이들 중 35명은 소천하였다.
- ⑨ 사별가족 돌봄 : 소천시에는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금을 전달하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과 슬픔을 위로한다.
- ⑩ 홍보 : 각 교회와 단체, 기관 등에 홍보지 등을 발송하여 호스피스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한다.
- ⑪ 심리적 돌봄 : 말기암환자의 두려움, 외로움, 불안함 등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기도와 말벗이 되어준다.
- ⑫ 사회적 돌봄 : 경제적인 문제를 상담 후 시청, 복지사 등과 연결하여 병원비에 도움이 되도록 힘쓴다.
- ⑬ 간호대학생 실습지도 :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간호대학생들에게 2인 1조로 실습 및 지도한다.
- ⑭ 가정호스피스 : 퇴원한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케어한다.
- ⑮ 특별활동 : 봉사자의 스트레스 및 즐거운 교제를 갖기 위해 율렛길걷기, 오름오르기, 섬나들이 등을 하고 있으며 이웃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봉사자들의 질 향상을 위해 수시로 교육을 받는다.

## 제주호스피스

### 감사 그리고, 선물

우리 호스피스 봉사자 들은 매주 수요일이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친교와 기도회 시간을 갖는다. 자신을 내려 놓고 사랑하며 섬기며 환우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 죄를 씻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한걸음씩 우리도 그 길로 다가간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아무도 함께 갈 수 없는 깊고 깊은 긴 터널을 홀로 외롭게 지나가는 환우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위로가 될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우리는 병실에 들어가기 전 작은 예수가 되어 성령께서 먼저 가 마음 문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생의 말기에 남편과 함께 지내면서 이전에 몰랐던 행복감과 고마움이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가기에 나토 싶은 마음 커져 갑니다. 그러나 이제 후회는 없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마음 가슴가득 담아가니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히 가렵니다.” 어느 환우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소유욕으로 인해 내려놓지 못한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환우들을 보내면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현재 당한 고난은 장차 돌아올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 앞에서 비움의 법칙을 움켜쥐고 인내의 뿌리와 감사의 줄기, 사랑의 열매를 나누려고 서로 부대끼는 소리가 가느다란 침묵과 함께 목선을 타고 흐른다.

따스한 햇살과 신선한 공기 스쳐가는 바람소리 귀 기울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시간들이 아쉽기만 하다. 진정 사랑은 감동을 낳고, 감동은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묘약인 것을 우리는 환우들을 통해서 매순간 배운다.

하나님과 호스피스협회장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제주 호스피스지회장 조 영 매 권사

# 제주호스피스

## 동향 및 활동

- ❖ 해마다 정기총회 실시 (제 17회 총회 : 2013년 2월 4일)
- ❖ 매년 1회 자원봉사자 정기 교육 실시
- ❖ 운영기금 마련
  - 예수교장로회(통합) 제주노회 병원선교위원회에서 '신입 자원봉사자 교육비' 용도로 연 300만원 지원금
  - 이사들의 연회비, 소수의 교회와 단체 후원금, 개인 후원금, cms 후원금
  - 바자회(연 1~2회, 품목 : 고추장, 썩개떡 외) 수입금
  - 기타(회원 및 환우, 보호자 감사헌금)
- ❖ 매주 수요 정기 기도회 가짐
  - 말씀 담당 : 이사장 목사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목사님
  - 참가자 : 매주 10여 명 이상
- ❖ 자원봉사자 현재 18명
- ❖ 활동 병원
  - 한라병원에서 산재형으로 활동함
  - S 중앙병원(신설)에서도 활동 예정
- ❖ 환자 가정 호스피스 케어 실시(월 6회 이상)
- ❖ 연 2회 영성 수련회
- ❖ 연 2회 중 1회 한국호스피스 세미나 참가
- ❖ 선진호스피스 기관 탐방 연 1회
- ❖ 회원단합 대회 연 2회

